



누구의 발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이 아닙니다.  
사람들 놀래 주려고 조작한 사진도 아닙니다.  
고행을 좇아나선 순례자의 발도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발은.....  
영실공히 세계 발레계의 최고라는 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그녀의 발은, 그녀의 성공이 결코 하루 아침에 이뤄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루 열아홉 시간씩, 1년에 천여 켤레의 토슈즈가 닳아 떨어지도록 말짱하던 발이 저 지경이 되도록...  
그야말로 노력한 만큼 얻어낸 마땅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때 그랬지▶ 펌프  
한 여름 더위에 목이라도 축이려 손잡이를 올리면 '철거덕' 소리만 나던 펌프. 거기에 물 한 바가지만 붓고 몇 번 펌프질하면 금방 시원한 물이 올라 왔었죠. 학교에서 돌아와 펌프앞에 손잡고 엎드리면 누이의 펌프질로 시원한 등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면 얼지말라고 두꺼운 헌 옷으로 펌프를 칭칭 감싸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이젠 그 녹슨 펌프질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하염없이 앉아 듣다 보면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7월 25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사랑의 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 옆에서 살게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욱 마음에 상처를 받고  
원망 불평만 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인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미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 보다  
더 멀리 봅니다  
- Augustus Toplady-

◀이웃 생각▶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남한테 던지는 것은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인도자
*찬송 Hymn	56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3 (계 21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56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 5:1-11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도행전의 기적 "순수할 수 없었을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54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7.8월의 예배위원◆

### ◆8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25	이규임	임숙경	10구역
1	이재영	장유진	11구역
8	장현중	정성호	1구역
15	정덕수	정이지	청년부
22	정희자	조미애	2구역
29	지찬영	추미선	3구역

1		구역예배(6) 3.4선교회 운동
8		믿음의어머니기도회(10)
15	식사친교주일	학생부 Sports day(15)
22		수요수도원(25)
29	이삭줍기주일	

'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전화번호 변경> 이종인 집사. 현순진 성도. 윤정화 집사 ☎473-0536  
<독일행> 김 리브가(김창식, 민광자 집사 딸). 8월초 귀국
- 오늘은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주일"  
\*가벼운 생각으로 느껴지던 Silver Coin이 사랑의 이름으로 필리핀, 태국 그리고 고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내지면 목직한 힘이 됩니다.
- 이번주 수요일예배는 "수요 수도원"입니다. <일시> 수요일 저녁 7:30-8:30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잘 되겠지' 하며 그냥 지나 보냈던 우리의 기도제목들. 수요수도원에 모두 갖고 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무 순서도 없습니다. 기도만이 그 모든 것인 "수요수도원" (8:15분부터 Hall에서 Tea Time)
- 3,4남선교회 친교 '실내축구경기' (예고)  
<일시> 다음주일 예배 후 오후 2:30부터 <장소> YMCA 체육관(City)  
\*체력으로 미는 4남선교회, 노련미로 승부하는 3남선교회.....그러다가 다음날 앓았다 일어나면 서로 같은 말이 나오죠 "아이구아이구아이구"
- Photo(체육대회 전교우사진): \$5  
Video Tape(감사의 콘서트. Pump House): \$5 (Hall)
- 새벽기도회 : 매주 금요일 6:00 am  
\*높고도 높은 교회당이라 난방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즘 새벽, '교회안이 따뜻하면 교우들께서 더 기도집중이 잘 될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여져 나의 기도도 흔들립니다. 어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화장실 청소: 8월-9월(토요일)

### ◀착한 시인들▶ 청포도

이육사

내 고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주절이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끈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7월이면 만리포와 아카시아꽃 향기가 떠올라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서 7월의 추위가 지났으면 하는 마음이 이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름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7월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선 12월이라 부르기도 하는군요. 자기들이 구분하고 부르면 그것이 절대 진리인양 믿고 사는 인간들의 허구....  
올 해는 유난히도 추운 7월의 겨울에 우리의 더웠던 추억이라도 떠올리고 싶어 띄약별에 영글어가는 '청포도'를 생각했습니다.